

끔찍한 발상...한반도 대결구도 강화

미국의 비핵지대화 거부·120일 전쟁 시나리오 언저리

걸프전쟁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자신하는 미국은, 그들의 국가이익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한반도와 관련한 정책에서도 전례없는 자신감과 일방적 적극성·독단성을 보이고 있다.

걸프전쟁 이후에 나온 미 행정부의 일련의 입장과 정책들—예컨대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거부, 한반도와 중동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위협성이 높은 본격 분쟁지역으로 분류하면서, 핵무기·화학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1백20일의 중기전쟁을 가상하고 있는 미 국방부의 전쟁시나리오 그리고 2000년이 훨씬 지난 뒤에까지도 상당수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것이라는 입장 등은 바로 미국의 일방적 적극성과 유렵과는 다른 냉전적 대결구도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엄청난 정책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의사나 감정과 관계없이 “미국의 국가이익과 필요”에 따라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민 뜻 무시 일방결정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가 그 대표적 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은 핵문제에 관한 한 구체적 입장의 표명을 유보했는데, 걸프전쟁 이후에는 이에 적극적이고 비핵지대화를 거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국의 대통령마저도 “핵문제를 언급할 입장이 아니며, 미·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발을 뺐은” 상태이니 주한미군의 핵문제는 거의 속수무책으로 일방적이었다.

주한미군의 상당수준을 2000년이 훨씬 지나서까지 유지하겠다는 칼 포드 미 국방부 수석차관보의 최근 발언 역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의 장래가 결정되고 있음을 솔직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는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병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 태평양지역에 미군을 전진배치할 중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주한미군의 존재가 그들의 세계경영의 한부분으로 필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주한미군 신속배치 강조

미 국방부의 여러 보고서들도 이런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근 의회에 보고된 미 국방부 합참본부가 작성한 91년도 ‘미군사력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미국의 이익이 위협을 받거나 위기가 전개될 경우 미국은 신속하고 대량적인 병력투입을 통한 위기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미군기지와 전진

한반도와 중동, 북한과 이라크, 그리고 걸프전과 한국전을 나란히 놓고 진행하는 비교·분석은 미 행정부의 시각으로부터 진보적인 지식인, 평화운동가들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핵 개발’ 새 북한위협론

미 행정부의 시각은 물론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여전히 커다란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 행정부의 이런 강조가 걸프전쟁 이후에 특히 유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들이 최근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개발과 핵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을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한반도와 중동을 가장 위협성이 높은 2대 본격 분쟁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시설 예방 제한공격 시사 주목

이라크·북한비교 불길한 예감...국익위해 지역분쟁 유발할지도

주한미군 위상 높아 ‘탈냉전’ 조류 외면

배치지역으로부터 분쟁지역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한 병력과 장비를 이동함으로써 압도적인 힘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전진배치라는 군사전략 개념은 앞으로도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미국의 접근을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

걸프전쟁 이후의 이러한 일방적 적극성,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한반도와 중동, 북한과 이라크의 병렬비교, 걸프전쟁과 한국전쟁(1950년 또는 또다른 한국전쟁)의 비교 등은 한반도 주변에서 일고 있는 ‘음산한’ 긴장감을 느끼게 해준다.

‘핵전쟁 발생’ 발언까지

더욱이 “한반도가 세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15일 발언(CNN방송) 대답에 이르른 긴장감을 넘어 소름끼치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

실제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엄청난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데다 아직도 불가침협정 하나 체결 못하고 있는 불신·증오의 상태이기에 ‘상당한 위협’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는 전 중앙정보국 요원인 필립 에이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은 “경제적 불황과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항상 군사지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위기와 지역분쟁, 또는 전쟁이 시시때때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걸프 또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늘 유지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강조하면서 특히 걸프전쟁 이후에는 이라크와 북한의 비교를 자주 시도해 왔다. 가령 리스카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상원 조사위의 증언에서 북한이 지상군 병력과 전투체제에서 이라크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밝혔으며 특히 개발된 스커드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생화학무기의 위협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커드미사일, 생화학무기, 거기에다 핵무기 개발 가능성까지 보탠다면 이라크와 북한의 비교는 새삼스러운 의미를 갖게 된다.

바로 이런 점을 비롯, 걸프와 한반도(1950년)에서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까지 관심을 두면

서 진보 지식인, 평화운동가들은 “미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북한을 이라크와 비교하면서 새로운 한국전쟁의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데이비드 이스터(신한국정책연구소장), 잭 오델(무지개연합사무국장), 다무 스미스(후인 평화운동가, 코리아의 평화·통일위원회 공동의장) 등 한반도 문제에 관심있는 평화운동가들이 최근 재미 한청년에서 마련한 워싱턴과 뉴욕의 토론회장에서 제기한 문제도 대략 그런 범주였다.

그리고 전 중앙정보국 요원인 에이지가 <Z>라는 잡지에 기고한 ‘적절한 위기의 창조’라는 글에도 걸프전과 한국전을 바로 그런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두 전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 첫째, 전쟁으로 확대되기

점 스드 지도자 모두 미국이 주된 안보이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극히 폭발성 높은 지역의 ‘제거’하고 싶은 문제야라는 점 스드 나라 모두 미 국무부의 테러국가 목록에 올라 있다는 점 스드라고 인권침해가 극심한 나라로 미 국무부가 비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남·북한 상황극복 노력을

걸프전쟁 이후 한반도의 분위기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바로 이런 심상찮은 분위기에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엔테베작전 같은 제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이종구 국방장관의 발상에 이르게 되면 한반도의 운명은 ‘통곡’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끔찍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하여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우선 남과 북에 요구된다. 먼저 남쪽에 서는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약점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오랜 군부독재의 청산을 위해 야권의 ‘무조건적’인

통합이 가장 시급히 요청된다. 한반도의 이 음산한 미래를 펼쳐버리기 위해 정권교체 때 까지 모든 상호비방과 비난을 금지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하나로 묶이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또다시 우리 사회를 더욱 깊어질 수 없는 ‘분해의 사회’로 계속 몰아갈 경우, 야권도 너나할 것없이 모두 역사의 가장 큰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다음 북쪽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에 즉시 서명하고, 유엔에 동시분리가입을 단행하는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그동안 만세만 부르다, 오늘날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갖게 되었다”는 어느 북한 고위관리의 고백은 바로 현실을 떠나 명분과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이 때로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핵안전협정을 조건없이 선포 받아들이으로써 국제사회에 ‘무고함’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을 뿐 더러, 이 문제로 인해 일어난 긴장과 고립을 한꺼번에 털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 동시분리가입 문제도 원칙이나 명분보다는 국제무대에 당당한 일원으로 나선다는 능동적인 실리의 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다. 지금은 ‘만세’를 부를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을지라도,

삶과 사람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찾고 가꾸는 당신이 있는 한 세상은 아직 아름답습니다.

문둥이 생자

다미안

희망의 사도 다미안 신부의 생애 / 3,800원

정신세계사